



특별인터뷰 자율형공립고로 선정된 김중태 중앙고등학교장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5년간 15억 지원 받아

우수교원 확보 일관성 있는 교육 통해 인재 양성

지역의 명문 중앙고등학교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를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한 자율형공립고로 선정돼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중태 교장은 “자율형공립고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우수 교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교육, 그리고 다양한 체험·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중태 교장과의 일문일답.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은.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5년간 자율형공립고 운영 지정을 받았습니.

인근에 유수한 사립고등학교들이 많아 공립고등학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던 터에 부산중앙고등학교의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계획서를 알차게 작성, 제출한 것이 선정의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자치단체와 총동창회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장은 공모로, 교사는 초빙할 수 있게 되어 일관성 있는 교육 경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억(5년간 총 15억)이란 예산은 학생들에게 정말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주게 되어서 올해 우리 학교도 20억 가량의 지원을 받아 노후 된 바닥과 석면 천장, 낡은 체육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게 되는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우수 교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의 적용,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즐거운 학교생활과 함께 진학 성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의 교풍도 바로 세우고 면학분위기도 다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학교 경영관이 투철한 학교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우수교원 초빙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루어질 교육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대학마다 다양해지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들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비용과 노력 면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다는 자세로 3년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독서, 논술 학습,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과제 연구 및 동아리 활동, 교과별 심화학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능력 있고 품성 좋은 학생으로 길러낸다면 입학사정관들이 선호하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언어, 수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

고 방과후 수업 및 수준별 특강을 확대하며, 학년별 정독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만 믿고 따라준다면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나 중국, 일본 등의 문화 체험 연수 등도 기획하고 있어 세계인으로서의 중앙인을 기를 계획이며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것을 고려하여 교내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흡수하여 풍부한 감성과 인성을 함께 갖추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기타 홍보 사항이 있으면.

▲부산중앙고등학교는 1972년 개교하여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역 명문 학교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산중앙고 총동창회는 다른 공립고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평생의 모교로 마음 속에 남는 학교가 됩니다.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졸업한 2만 여명의 선배를 재산으로 얻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년 1억에 가까운 기금을 장학금 및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운영과 발맞추어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연간 6천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가정 형편이 나빠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련 기자

알아도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선수수를 개개인이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감독님의 지도말씀과 함께 카페(http://club.cyworld.com/JT-Tank)에 올려놓고 있다.

내년에 신정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김준성(용문초등학교 6학년)군은 “프로야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수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탱크야구단의 훈련방식은 박정태 단장이 유소년선수시절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지도하고 있다. 선수들 모두 팀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담감 없이 즐기면서 야구를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입단자격은 야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현재의 선수진은 주로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지만 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도 가능하다.

☎621-8126, 011-9313-7951

류진기 기자

■만남습니다

행복 전달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터

민임과 자율경영 통해 폭풍성장 이룩한

용호동 중앙신협 김명수 이사장

용호동 중앙신협이 중앙신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명수(용호2동 67) 이사장이 있다.

김 이사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고객과 직원들을 아우리며 믿음과 자율의 경영철학을 실천, 열매에 가까운 경영실적을 거둬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중앙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당시 120억원에 불과하던 자산을 1,038억원으로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도 8,500명까지 늘고 현재 분포지점과 남부금융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중앙신협을 신협계의 삼성으로 만들겠다”며 직원 처우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고 직원들은 고객인 조합원들에게 미소와 친절로 보답했다. 김 이사장도 이사장실을 나와 틈나는 때

로 고객을 응대하며 출근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중앙신협은 건전성 7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폭풍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김 이사장은 “중앙신협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금융기관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김 이사장은 이익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혜택 등의 경제적 특전은 물론 문화와 교육에 관련한 행사를 마련 고객들을 섬기고 있다. 얼마 전에는 조합원 27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감사의 밤 불꽃축제를 열었



으며 봄나물 채취 등 체험행사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용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와 1사1교 협약을 맺고 장학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용호발전협의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삶과 인생-칠순의 나이에 식육점 운영하고 있는 김 기 일씨

스스로 벌 수 있어 감사

고령의 나이와 오랜 질병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어르신의 삶이 주위를 감동시키고 있다.

문현1동 인강사 근처에서 ‘문현황정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일(74) 어르신이 바로 그 주인공. 김기일 어르신은 40여 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다.

4년째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만 영업한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은 시간에 맞춰 가게를 찾고 있다. 수십 년 된 단골들도 많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장사를 하는 이유를 묻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말로 대신한다. 몸은 비록 병들고 아프지만 끓여 오르는 부정(父情)은 어쩔 수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그는 6·25 사변 때 부모님, 형제들과 문현동으로 피난 와서 계속 이 곳에서 살고 있다. 그가 장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계 때문에 시작한 일을 시골 여거지기에 팔려 다니다



고령 중병에도 불구하고 40년째 영업 찾아주는 단골손님 있어 위안

가 문현동에 식육점을 열어 40여 년 천직이거나 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까지 거두고 30세가 되어서야 세 살 아래인 공외식씨를 만나 결혼을 했다. 2남 2녀를 낳아 공부시키고 모두 출가시켰다.

부인과 11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기거하면서 병을 얻게 됐다는 어르신은 “생계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요즘과는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계속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이 업이 고맙기만 하다”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는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노력연금 혜택도 못 받는 게 섭섭하지만 단골들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우리 집 고기를 사줄 때의 그 고마움으로 위안이 된다”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어르신의 여유 있는 모습은 아직도 스스로 벌이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듯 하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그의 원망은 내심 깔려 있지만 자식에게 의지 않고 중병을 혼자 깨끗하게 치료하면서 감내하는 모습을 보니 동경하면서도 쓸쓸했다.

우리네들의 미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펐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높이 사고 싶었다.

생계 때문에 늘 고생한 기억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이지만 중병을 앓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은 우리를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정희 기자

이런 모임 어때요 -부산 남구 탱크 야구단

즐기는 야구 공부하는 어린이 지향

초등학교생 23명 야구선수 꿈 키워 박정태 롯데2군 감독 특별 지도

지난 10일 바람이 제법 매섭게 부는 날 백운포를 찾았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운동장에서 야구연습에 한창인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은 2009년 9월 창단한 ‘부산 남구 탱크 야구단’ (이하 탱크 야구단) 소속 선수들로 야구의 명문으로 이름 난 남구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탱크 야구단은 현재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정태 감독을 단장으로 하고 프로출신 코칭스태프의 지도하에 ‘서로를 아끼고 단체 생활 속에서의 예절과 융합, 배려를 강조하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체력 단련은 물론 정신력 단



부산남구탱크야구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를 외치고 있다.

련을 함께 하고 있다.

창단 5개월 첫 출전한 경기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이뤄내는 등 야구 명문 남구에 적을 둔 야구

단답게 실력을 쌓아 가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3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1까지 입단이 가능하다. 매일 4시 30분부터 3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있으며, 날토에는 기술훈련을 위주로 하고 학교 가는 토요일에는 실제 훈련장면이 녹화된 것을 보면서 이론 수업을 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함께 하는 과학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운동장에 직접 나오지

업무파악이 곧 서비스로 이어져

오 록 도 친절지기 대연4동 이대희씨



친절응대에 감사여서 쇄도

관심과 배려의 행정실현이 꿈

서 감사함과 참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사는 분들임을 느끼게 한다.

이대희씨는 장애와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친절의 기본은 모든 업무를 잘 파악하여 민원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겸손해하는 대희씨.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방문하시면 신청서류를 써 드리고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최정순 기자

김태유 윌리스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김태유 윌리스병원 원장이 최근 열린 ‘제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 원장은 남구보건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윌리스병원을 운영하며 치매에 관련한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원장은 대한치매학회와 다병원 신경과 의사들과 힘을 모아 2004년 ‘치매 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2010 ‘신경

인지치료’ 도서를 발간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환자의 행동신리적 증상의 차이’ 등 치매와 관련한 2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다.



남구주민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2010년 12월 6일

수강료 : 6만원 월, 수, 금 10 : 00~10 : 50 (10명)		초보자 컴퓨터 확실히 익히기 인터넷검색, 이메일 보내기, 카페만들기 사진올리기, 엑셀				
대상 : 남구주민 (주부, 노인, 실직자) 전석수 10명						
국비 노동부		계좌제 (실업자) 훈련안내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전산응용조선제도 및 선체설계	12월 중 개강 (화원문외)	2개월	11 : 30 ~ 13 : 30 (월~금, 주5일)	10명	14만원	56만원
CAD실무			14 : 00 ~ 16 : 00 (월~금, 주5일)	10명	12만원	48만원
사무직전문과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11 : 00 ~ 13 : 0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전산실무자격증 워드, 엑셀자격증			13 : 30 ~ 15 : 3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대학졸업자, 일반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시는 분(교통비 월 5만원 지급, 선택수 마감)						
대연부정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옆, 베이직하우스 8층						

제사·고사·묘사 음식

집안 풍습에 따라 맞춤형 주문 가능합니다

이바지음식·신행반찬 주문 받습니다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모양만 예쁜 음식이 아닌 맛도 최고 모양도 최고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들어 당일 배송

☎ 626-0662

예비사회적기업
다문화카페 후(hu;)

다문화카페 후;에서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차를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눠주세요~



특별한 선물세트를 주문받습니다!!

◆ 다문화 수제티백 ◆베트남커피 ◆수제쿠키
◆친환경야채키친세미 ◆천연수제비누

다문화카페 후(hu;)

☎ 051)462-3655 / www.cafehu.com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55-14 2층

